

트라즈, 새 앨범 수익금 전액 흑인단체에 기부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팝 가수 제이슨 트라즈가 새 앨범의 수익금 전부를 흑인 단체 등에 기부했다.

빌보드는 지난 19일 제이슨 트라즈가 미국 흑인 노예 해방일 '준틴스 데이' (June-teenth Day)인 이날 발매한 신보 '룩 포 더 굿' (Look For The Good) 수익을 흑인과 인권 관련 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트라즈는 SNS에 "평등의 진보를 위한 역사적인 날인 6월 19일, 내 신보 판매와 스트리밍에서 얻은 모든 수입을 기부해 '흑인 생명' (Black Lives)과 연대하고 봉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고 썼다.



▲ 지난해 열린 제이슨 트라즈의 내한공연 포스터. 사진=멜론 티켓

빌보드에 따르면 그는 로열티로 미리 받은 25만 달러 역시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Black Lives Matter) 등 여섯 개 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트라즈는 업계 창작자와 지도자들이 기부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부와 이익을 나누고, 삶이 모든 사람에게 좋을 때 비로소 위대해진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트라즈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그는 다섯 차례나 한국을 방문해 공연을 펼쳤으며 평소 인터뷰에서도 공연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한국을 꼽고, 끊임없이 한국팬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오고 있다.

한국 드라마 '호텔 델루나', 미국서 리메이크



▲ 미국에서 리메이크되는 '호텔 델루나' 포스터. 사진=tvN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한국 tvN 방송의 '호텔 델루나'가 미국에서 TV시리즈로 리메이크된다.

'호텔 델루나'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 24일 할리우드 제작사 스카이댄스와 미국 버전 '호텔 델루나' 공동 기획·제작에 나선다고

밝혔다. 스카이댄스는 영화 '터미네이터', '식스 언더 그라운드', '미션임파서블' 과 드라마 '그레이스 앤 프랭키', '얼터드 카본' 등을 제작한 회사다.

스튜디오드래곤은 "TV 시리즈가 제작되는 전 과정에 스튜디오드래곤과 스카이댄스가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점에서 여타 지적재산(IP) 계약과 다르다."며 저사가 "방송·스트리밍 서비스, 연계 부가사업 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버전 각본은 '얼터드 카본'의 제작 총괄이었던 앨리슨 샤프커(Alison Schapker)가 맡았다. 한국 오리지널 대본은 홍자매(홍정은·홍미란)가 썼다.

아카데미, 인종차별 이어 장애인 차별도 개혁

'백인 남성들의 잔치'라는 오명 지우기에 나선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이번에는 장애인 배우들을 위해 나섰다.

지난 22일 블룸버그통신은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주관하는 AMPAS가 어린 배우 지망생을 위해 마련된 인턴십 프로그램인 '아카데미 골드 프로그램'에 장애를 가진 배우 지망생들도 모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전체 참가자 74명 가운데 9명은 장애인 배우 지망생에게 할당된다.

그간 할리우드 영화계는 장애인 역할에 주로 비장애인 배우를 기용해왔다. 특히 이러한 '장애인 배제'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역할을 맡은 비장애인 배우들의 '명연기'에 찬사가 돌아가면서 고착화됐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아카데미상과 함께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루터만가족재단에 따르면 영화에서 장애를 가진 등장인물의 78%를 비장애인 배우가 연



▲ 아카데미가 '아카데미 골드 프로그램'에 장애를 가진 배우 지망생들도 모집할 예정이다. 사진=shutterstock

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루터만가족재단의 제이 루터만 회장은 성명을 통해 아카데미와의 협업이 할리우드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카메라 앞 뒤에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수록 우리 주변 세계를 더 잘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인턴십 프로그램은 미국 장애인법 제정 30주년을 전후한 7월 말께 시작된다.

숫자퍼즐 정답

9	8	4	1	2	5	6	3	7
5	7	2	3	8	6	1	9	4
1	3	6	4	9	7	5	8	2
8	9	1	5	7	2	4	6	3
6	5	3	8	1	4	7	2	9
2	4	7	6	3	9	8	1	5
7	1	8	9	4	3	2	5	6
3	2	5	7	6	1	9	4	8
4	6	9	2	5	8	3	7	1

“에버그린 프리스쿨입니다”

www.myeevergreenschool.com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